

지상진료실

미란성 편평태선 (Erosive lichen planus)

서울치대 구강진단학교실

이승우 · 김연중

전편(1990년 2월호)에서 소개한 편평태선의 위축형 병소는 궤양을 형성하여 미란형 또는 궤양형 편평태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형태는 구강편평태선 중 7%를 차지한다. 미란형의 구강편평태선은 major type과 minor type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minor type은 특징적으로 구강점막에 작은 미란성 병소가 나타나며, 종종 비미란형 편평태선에서 나타나는 우유빛 백색 병소에 동반되어 나타난다. minor type에 의한 동통은 매우 다양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불편감이 있다. major type은 부 형태에 비하여 매

우 드문데, 두드러지는 특징은 점막, 특히 혀에 넓게 퍼져 나타나는 궤양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개된 사진에 잘 나타나있다. 궤양은 혀의 배면 전체를 침범할 수도 있는데, 발병은 매우 급작스러우며 환자는 심한 동통을 느낀다. 과거에는 구강편평태선이 악성병소로의 전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구강편평태선으로부터 암종이 발병한 증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러한 견해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구강편평태선으로 부터 유래된 암종 증례의 대부분은 위축형 또는 미란형으로 부터 유래된 것이

